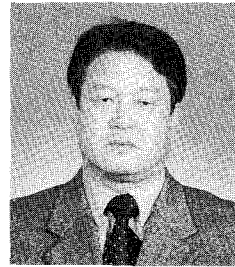


## 대다수의 양계농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란등급제가 되도록...

**내** 벌써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마음도 모두 분주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연말이라니 세월이란 이토록 허탈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해의 끝을 장식하는 십이월은 양계인들에게 더욱 더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느껴지리라 생각된다.

채란업에 있어서 금년 한해는 30년만의 흑한과 폭설, 그리고 90년만의 가뭄 등 2000년의 불황에 지친 채란인들의 진을 모두 빼놓는 한해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1~2월에 내린 폭설은 튼튼하게 지어진 계사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을 발휘했고 그 안에서 산란을 하고 있던 닭들은 손도 못써보고 아사와 동사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지난해의 불황과 금년의 폭설 등으로 생산이 줄어 다행히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을 본 농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매년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2중가격으로 농가의 소득은 낮아지고 질병이 만연되어 양계인들은 참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즉, 농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대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어찌보면 속빈강정과도 같이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가슴속 깊이 남으리라 생각된다.



김 선 응  
(봉림농장 대표)

## 1. 지역간 고시제도의 문제점

금년도 계란가격은 다운폭이 여전히 많이 벌어졌음에도 예년에 비해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지난 9월에는 특란 개당 113원까지 올라가는 등 금년도 들어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계란가격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전국의 곳곳에서 무원칙하게 고시되고 지역간 의견접근이 잘 안이루어지다 보니 지역간에 엄청난 가격격차를 나타내면서 수도권의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국은 전국의 시세가 바로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세속보를 통해 발표된 계란가격은 당일 발표된 시세에 따라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그 계란에 판매당일의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하는 반면 생산자들에게는 후장기라는 행위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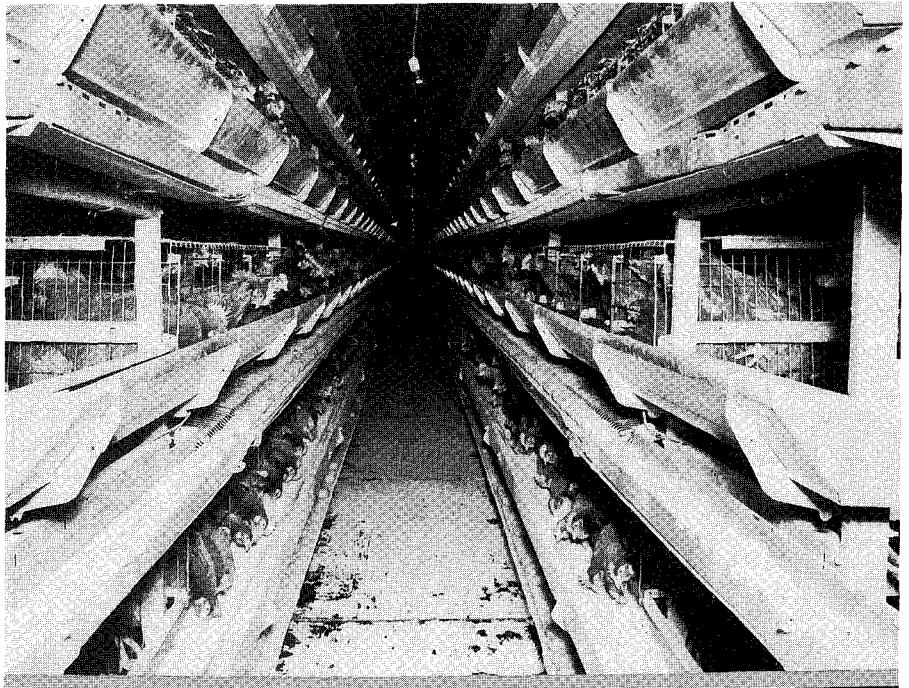
있다. 후장기 제도는 과거부터 양계인들을 중심으로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들과 협의하에 이를 없애고 거래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산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데 있다. 또한, 상인단체의 불법적

인 가격담합과 불법 팩스 유포로 인하여 시장을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금년에는 상인을 중심으로 계란판매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계란가격 고시는 물론 계란수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었다. 이처럼 상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하는 만큼 생산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으면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각 지역 난가 담당자들은 각 지역에서의 정보교환을 통해 전국의 유통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 2. 계란등급제의 올바른 길

금년도는 지난 10월 계란등급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엄청난 갈등을 겪어왔다. 소비자들에



게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을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외국의 계란등급제의 예를 들면서 국내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란등급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등급제를 정착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일본처럼 계란 유통의 전 과정에서 냉장유통체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등급을 찍기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되었던 농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 집하장이나 GP시설이 완벽한 대단위 농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란은 생산 당일부터 보관온도에 따라 신선도와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생산량의 90%이상 냉장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제는 유통의 혼란만을 초래한 채 생산농가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등급제가 내년 3월 이후로 이루어진 것은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계란 등급제는 계란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시범적으로 여러군데 집하장에서 어느 매장에나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될 수가 없다. 시범사업이라함은 유통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실시하는 것으로 한 개의 공인된 집하장을 선정하여, 한곳의 매장을 통해 유통을 시켜가며, 장기간(최소 1년) 동안 시험을 거쳐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등급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95% 이상의 계

란이 등외품으로 판정되어 대다수의 농가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농가들도 이대로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차후 등급제 실시에 대비해 각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보다 품질이 좋은 계란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준비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질병예방에 만전

금년 3월부터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이 국내에 수입되어 보급되고 있다. 1992년부터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금티푸스가 이로 인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캐슬병 근절대책에 따른 백신 지원 등으로 이 질병도 많이 사라진 느낌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국내 가금육에서 검출되는가 하면, 중국내에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금육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양계산업이 정부의 무역협상에서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한번 감염되면 그 확산속도가 엄청나고, 폐사로 인한 피해도 말할 수 없다.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1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질병을 막아주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는 철저한 공동방역을 실시하면 국내에서의 양계 질병은 많은 부분 사라질 것이다. **양계**